
새시대 교수법 164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말하기의 반대는 말 듣기가 아니다. 말하기의 반대는 기다리기다.

-- 레보이츠

말 귀담아 듣기 3

남의 말 귀담아 듣기의 첫 두 방법은 "시선을 집중한다"와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이어 셋째 방법은 말이 끊겼을 적에 더 많은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거나 당혹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이어주는 부드러운 질문이어야 하겠습니다.

(3) 말을 건다

가상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로 계산되었지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베...?] 엔트로피 변화가 플러스로 나오면...[아이 헛갈려!]"

학생이 어렵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학생은 말을 확실하게 매듭 짓지 못하고 끝을 얼버무리버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수님께서 학생의 말을 끊고 곧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학생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라 교수님께서 학생의 질문 첫마디만 들어도 그 학생이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척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학생이 무엇을 혼동하고 있는지 알아요. 엔트로피 생산은 항상 플러스이지만 엔트로피 변화는 열전달로 인하여 감소할 수도 있지요. 이해되니까?"

질문을 한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옆 학생들을 눈치보니 다들 조용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이크, 나만 교수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네..." 교수님의 설명을 알아들었지 못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들은 척하면서 넘어갑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교수님께서 호뭇해하겠지요. 그러나

이때 교수님께서서는 정답을 말해주는 대신 학생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끝까지 하게끔 도와주어서 교수님께서 학생의 의문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막 학생이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혹시 엔트로피 생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학생에게 되물으면 학생이 엔트로피 '생산'과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질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식의 유도성 질문은 교수님께서 "난 학생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줍니다. 이런 비구어적 메시지를 전달받은 학생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교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편집 코멘트>

저는 다음 주부터 6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출장 중이라서 "새시대 교수법" 전송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하루 정도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